

특별취재

군산수협,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군산대학교는 6일 “군산수협 수산장학 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군산수협 김광철 조합장을 비롯한 군산수협 관계자 군산대 내외군 총장 등 주요요직자 참석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해양생명을 용과학부, 해양생화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등 해수양판련 학과(부) 재학생으로 연계진 등 12명으로 아들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협장학금은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이끌고 어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산계열 전공 학생에게 학기당 1회씩 연 2회 수여되고 있다. 군산수협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군산대학교에 매년 2차례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157명의 수산인재에게 총 3억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내년동 예산편성 위한 19일까지 시민설문조사 진행

군산시는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에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진행된다. 시민의견 수렴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군산시 민이벤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사내용은 예산 편성방향을 비롯해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총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렴된 시민의견은 내달 개최 예정인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오는 11월중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특별안전점검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장영철)는 지난 5일 추석 대수송을 앞두고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관내 14개 소속장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확보를 위한 특별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익산역, 전주역, 정읍역, 남원역 등 관내 주요역에서 동시 실시되었으며, 역사세 승강기 관리실태, 맞이방 편의시설 및 영업매장 실태, 장애인 승강설비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전북본부장은 지난날 30일부터 관내 열차운행선 진입공사 현장 등을 도보로 순회하며 안전취약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안전점검의 날인 5일에는 추석대수송기간에 운행할 열차(객차)의 차량 정비에 직접 참여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완벽한 차량 준비를 통해 추석 대수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현금대액업소 등 방범 진단·홍보활동 실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5일을 시작으로 '현금화'가 용이한 현금대액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및 주민 친화적 방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중앙지구대 관내 현금대액업소는 금융기관 32개소, 금융방 23개소, 편의점 24개소 총 79개소로 익산 4개 지구대 중 가장 많은 개소가 있어 추석 전 현금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방범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특별방범활동이 시작된 첫날 관내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하여 총 10여 개소의 방범진단을 실시 하였고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보안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상호 공조 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범죄예방진단·홍보 등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을 추진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대한 전 방위 방범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롯데아울렛 입점관련 페이퍼코리아

“용역 보고서 중복 등 부실 진행”

“두 번에 걸친 용역 모두 동일 연구원들 의해 진행된 것”

군산시가 대형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이 기존에 실시했던 용역이 재탕 수준에 불과한 부실한 용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군산시는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연구팀에 의뢰한 롯데아울렛의 출점계획에 따른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진행된 용역발표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지역상인 우산입점 및 수주율과 이익의 사회환원, 영업기법 전수 회의 정례화 등의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에 약 450여명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놓고 상생방안 미흡에 나섰던 페이퍼코리아는 “이번 용역이 지난해 군산시가 군산대학교에 의뢰한 대형쇼핑몰이 지역에 미

치는 영향조사 용역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실시된 용역에서 지역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20여개 방안이 이번 용역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유사한 내용에 금액만 추가되는 등 재탕 수준의 용역이라는 것. 특히 두 번에 걸친 용역 모두 동일 연구원들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보다 새롭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추가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당시 용역에서 지역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이 이번 용역에 고스란히 반영됐고 금액만 추가된 것이다”며 “소요 금액도 상인들의 요구사항만 반영되고, 상생의 또 다른 축인 페이퍼코리아나 롯데쇼핑 측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롯데아울렛 출점으로 인한 대책수립을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임에도 상인경쟁력 강화 방안 실행계획 수립과 타 지역 합의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상권관리기구 설치에 대해 별도의 용역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등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초법적인 용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지난 2월5일까지 9700만원을 들여 ‘대형쇼핑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지난 4월28일부터 8월21일까지 3955만원으로 대형쇼핑몰 출점계획에 따른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용역을 추가 진행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중앙지하차도 공사 공정대로 ‘순항’

현공정 85% 구조물공사 완료되는대로 11월말 전면 개통키로

익산 중앙지하차도가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지하차도 공사가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공정은 85%로 구조물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내·외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는 11월말에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라고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밝혔다. ktx 서부역사 진입로는 총490m에 이르며 왕복4차선으로 건설되고 이중 290m는 지하차도로 box형과 U-type

로 시공되며 총 사업비 46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연결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신~송하간 도로”공사까지 마무리되면 ktx서부역사에서 산업도로까지 왕복차선으로 개통되어 그야말로 통차축이 펼쳐 원도심 교통난이 해소되며 일일 20,000여대의 교통량이 예상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건설시공과 조기개통을 위하여 익산시장과 시공사 간

단,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현장행정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섰으며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주문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나 중앙지하차도는 한국철도공단 시공구간과 익산시 시공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벽체타일 및 등기구 시공이 상이해 이를 바로 잡고자 국토교통부 등을 실행하여 8여여명의 국비를 추가확보 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추석 맞아 경암동 등 가로환경정비 실시

군산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에 나섰다. 경암동(동장 박식)은 지난 5일과 6일 직원 및 자원단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가로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명절을 맞아 철길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귀향객에게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화 및 메리골드를 식재하고 이면도로 불법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대로변에 대형화분 80여개와 화단 20여곳, 철길마을 골목 화분 80여곳에 국화 300본과 메리골드 1,500본 등을 식재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각종 쓰레기 등을 정비했다. 나은3동(동장 이철규)에서도 6일 노인일자리 및 직원 30여명과 함께 미

룡동 광장 2개소 등에 대하여 제조업체 및 화초 2500여본을 식재했다. 나은3동은 추석 전 주요 도로변과 관내 14개 소공원에 대해 제조업체를 실시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들고 오는 9일에는 자원단체 회원들과 함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군산대정문 인근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옥서면(면장 박남균)은 직원 및 공군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공군38전대), 이장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청결운동은 공군38전대 군장병이 참여해 옥서면 산동마을의 청소 취약지역과 공동 우물, 폐가 등 환경정비로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들과 소통·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환경정비로 불법쓰레기 3톤이 수거 됐으며 마을 환경취약지역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경암동(동장 박식)은 지난 5일과 6일 직원 및 자원단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가로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원광대 의과대학 9.3 추모제·총동창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의과대학은 지난 1997년 9월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봉석, 이성민 등문의 회생정신과 봉사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9·3추모제(사)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와 공동 개최했다. 추모공연과 공보전, 사진 및 동영상 전시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봉사문화 열전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추모비 앞 Hippo광장 및 의과대학 일원에서 유가족과 동문 교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캄보디아 유학생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참석해 헌화를 함께하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봉사문화백일장에서는 남순환(예1) 학생의 비움에서 우러나는 당신의 봉사, 봉사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마음'이, 수필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본인을 되돌아보고 봉사와 친숙해지는 자아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상권(보3) 학생의

'이기적인 아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포스터와 UCC 부분은 조양훈(보1) 학생의 '봉사는 +,?, X, ÷'와 하계방학 동안 열린사회몽골 의료봉사에 다녀온 최진우(예2) 학생의 동영상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봉사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졸업 선배에게 수여하는 '원광왕 奉仕賞(원광의 봉사상)'에는 김상덕(1회), 김진호(1회), 조선환(3회) 동문이 선정됐으며, 재학생이 받는 濟生賞(제생의제) 원광인상은 본과 4학년 문선호 학생이 선정됐다. 또한, 조선환 동문은 지역사회 연계봉사 활동이 탁월해 환경부장관 표창장 전북 지방경찰청장상, 부안 군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수상해 공로를 인정받고, 문선호 학생은 네팔 카드인도와 롬비니 베트남 타이응우엔 해외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해 담양, 곡성, 임실 등 국내의료봉사로 VMS(사회봉사인증) 점수 300점을 넘겨 눈길을 끌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추진사항 보고회

군산시는 6일 문동진 군산시장 주재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보고회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29건 947억원(연차사업 포함)이 투입되는 주민숙원사업은 2016년도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8건 완료, 연차사업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다.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안동지 등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입과번 보셔 군산 변전소

에서 군산시 산북동 새만금 변전소까지 6개 읍면동(입과번, 대어면, 회현면, 옥구읍, 나은동, 미성동)을 경유하는 총 30.8km 구간을 345KV 송전탑 총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문동진 군산시장은 “주민숙원사업은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등 이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악취배출사업장 현장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의 익산의 악취배출을 위해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5일 야간에 임택택 시의원과 악취과·과사무소와 함께 12 산업단지를 찾아 민관 합동으로 악취배출사업장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야간에 조업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장 행정을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 시설개선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 골짜에서 시료를 채취해 직접 맡아보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

뢰했다. 또한 악취상황실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악취 저감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없이는 어렵다”며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악취 해소는 불가피하다. 시에서도 악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 악취 검사를 205건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51개소를 적발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해경, 하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이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된다. 군산해경비전서는 8일 하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오는 8일까지 3일 동안 군산해 6부대와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하반기 첫 훈련으로 3013함 등 경비함정 7척에 해양경찰관 10명이 참가한다. 해경은 이번 훈련에서 각종 상황 발생 시 최상의 구조 대응태세 확보를 목표로 해상경정의 지휘역량 강화와 함

정, 항공제 12구조제 등 구조세력 간 팀워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반박 수달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안전·구조 중심의 상황대응 능력을 보다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훈련 2일째 되는 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군산시 옥포면 흑도 동쪽 5km 해상에서 경비함정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근해역에 작업이나 통행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문정곤기자